

“김장 포기하지 마세요”... 해남 절임배추 본격 출하

올 배추 34만t 생산 전국 재배량의 26%...7만t은 절임배추로 가공 쇼핑몰 해남미소·농가 직거래 등 주문... 지난해 930억원 매출 기록

“해남절임배추 있으니 올해도 김장 걱정 마세요. 해남군에 따르면 전국 배추 재배량의 26% 가량을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로 올해 4257ha 면적에서 배추를 재배하고 있다.

올해 생산량은 34만t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중 20% 가량이 관내 업체에서 절임 배추로 가공될 것으로 보인다. 해남 절임배추는 지난해 관내 700여 농가에서 248만여박스(20kg 기준)를 판매, 930여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해남 북평면에서 절임배추를 판매하고 있는 김광수 농가는 “한번 절임배추를 사용해본 가정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편리함 때문에 반드시 김장에 절임배추를 사용하게 된다”며 “요즘 김장하는 방법을

몰라 김장을 포기한다는 김포족들이 많아진다는데 편리한 절임배추를 사용해 보면 절대 김장을 포기할 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해남절임배추의 인기는 원재료인 해남배추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매우 높은데서 출발하고 있다. 해남절임배추는 70~90일 이상 충분히 키워 2.5kg 이상 절구가 잘된 해남 배추만을 사용해 국산 천일염과 깨끗한 물로 위생적인 시설에서 만들어 3~4차례에 걸쳐 깨끗하게 씻어 물기를 뺀 후 배달되므로 바로 김치를 담을 수 있다.

배추 속이 딱 차고, 절임을 해도 달고 아삭한 배추 본연의 맛이 살아있어 김장을 담가 놓아도 쉽게 물러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

올해는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집중호우 등으로 배추 수확시기가 다소 늦어지면서 절임배추의 출하도 지난 20일 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속이 짙은 해남배추로 김장을 담그는 적기는 김치의 날인 12월 초까지로 수도권 김장 시기가 끝나면 남부지방의 김장철이 본격 시작되면서 해남배추의 인기는 초겨울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절임배추는 해남군 직영쇼핑몰 해남미소나 개별 농가 직거래 등으로 주문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배송일을 지정하면 원하는 날짜에 받을 수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전국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고품질 해남배추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절임배추의 인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해남배추의 높은 인기에 원산지를 속이는 사례가 우려되는 만큼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고 생산기준 준수 등을 꼼꼼히 살펴 절임배추를 구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군 관계자들이 관내 한 절임배추 업체에서 위생점검을 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목포 대표 특산품 ‘홍어’ K-로컬 미식여행 33선에

문광부·한국관광공사 발간...홍어 역사·추천 음식점 정보 등 소개

목포의 대표 특산물인 홍어가 문화관광체육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발간한 ‘K-로컬 미식여행 33선’에 실렸다.

목포시에 따르면 K-로컬 미식여행 33선 책자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 발표한 지역 음식 15개, 지역 제철 식재료 15개, 지역 전통주 3개로 구성된 한국 음식관광 33선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음식문화가 수록돼 있다.

책에서는 목포 홍어를 고진감래(苦盡甘來) 끝에 즐기는 진미로 소개하며, 강렬한 맛과 향으로

사랑받는 목포 홍어의 역사와 함께, 그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추천 음식점 정보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홍어의 주된 판로를 확보하고 있는 목포시는 홍어 식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지난 6월 나주시, 신안군과 함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K-로컬 미식여행 33선은 대국민 국내 여행 정보 서비스 플랫폼인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전자책으로 만나볼 수 있다. 올해 말까지 영어, 일본



목포=문명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영암군 공공데이터 현황 한눈에

‘첨단 데이터 보좌관’ 구축...현안·이슈 주제별 분석 결과 제공도

영암군이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쉽게 그래프와 지도로 파악하는 ‘데이터 보좌관 구축사업’을 완료했다.

‘영암군 데이터 보좌관’은 지역의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플랫폼에 모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그래프·맵 등 시각화한 정보로 대시보드 화면에 구현하는 시스템이다.

영암군 데이터 보좌관 구축사업은 행정안전부의 ‘2024년 첨단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 공모사업’에 선정돼 5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올해 5~11월 진행됐다.

군정홍보실에 설치된 영암군 데이터 보좌관은 공공데이터를 수집·분석한 결과를 그래프·지도 등으로 송출해 누구나 영암군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돕고 있다.

여기에 영암군 데이터 보좌관이 보유한 데이터 융합기술은 영암의 주요 현안과 이슈에 대한 주제

별 분석 결과도 제공할 수 있어 과학행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영암군은 데이터 보좌관을 군정에 활용하는 동시에 데이터 융합 기술로 ▲영암형 ESG지표 ▲인구소멸지수 ▲청소년·청년 정주여건 ▲영암군 기업 5개 주제 데이터 분석 실시로 향후 정책 수립 기초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또 최종 점검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영암군홈페이지에 영암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보좌관 대시보드도 개발할 예정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군 데이터 보좌관을 포함한 첨단 기술과 데이터 기반의 과학행정으로 군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업무와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게 개방하겠다”면서 “탄탄한 과학적 기반 위에 지속가능한 영암이 될 수 있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해남군-日 가고시마 ‘고구마 산업 발전’ 힘 모은다

명현관 군수 현지 방문 협약 체결 품질 차별화...세계시장 공략 모색

한국과 일본, 양국의 고구마 고향이 뭉쳤다. 해남군은 지난 21일 일본 가고시마 NPO고구마월드센터 및 동아시아 고구마 친선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고구마 산업발전에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가고시마협 NPO고구마월드센터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명현관 해남군수와 NPO고구마월드센터 이사장 겸 동아시아 고구마 친선협회 고구마하라 시게키 회장, 해남군의회 이상욱 의장과 민찬혁 군의원, 양 기관의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고구마 산업발전을 위한 민간교류와 정보 교류에 적극 지원·협력하기로 하고 우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고구마 재배와 가공 판매를 비롯해 고구마 산업의 관광문화 발전을 위한 상호 정보교류 등을 통해 고구마를 활용한 융복합산업 발전에 협력하기로 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품질 차별화와 다양한 가공성공사례를 반영해 고구마 융복합산업 활성화로 해남고구마가 전국 최고를 넘어 세계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구마하라 이사장은 “해남고구마는 지난 10여 년



지난 21일 NPO고구마월드센터에서 명현관 해남군수와 NPO고구마월드센터 이사장 겸 동아시아 고구마 친선협회 고구마하라 시게키 회장, 해남군의회 이상욱 의장과 민찬혁 군의원, 양 기관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구마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해남군 제공>

동안 눈부시게 성장해 많은 발전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디저트와 같은 가공분야, 특히 냉동 가공이 이제 막 첫 발을 댄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기회가 된다면 기계설비 등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조연해 해남고구마 가공산업 발전을 돕고 싶다”고 화답했다.

일본 규슈 남부에 위치한 가고시마현은 고구마

의 고향이라 불릴 정도로 일본의 대표적인 고구마 주산지이다.

특히 고구마 술을 비롯한 100여종의 고구마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체험과 관광을 포함한 6차산업업으로까지 연계해 고구마 산업을 성공적으로 융·복합화하고 있어 전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영광군, 5대 분야 50개 공약 사업 확정

전 군민 100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농산물 가격보장제 확대 등

영광군 ‘장세일호’가 군민과 비상할 청사진을 내놨다.

영광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발전을 이끌 어갈 5대 분야 50개 공약 사업을 최종확정 했다고 25일 밝혔다.

장세일 군수는 최근 공약사업 실천계획보고회를 열고 내용 공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 등을 통해 공약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 했다. 이후 정책자문단의 검토 사항과 실과소별 보고내용을 수렴하고 자체 수정 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영광군 공약사업은 ▲지역경제(8건) ▲주민복

지(21건) ▲농산어촌(9건) ▲문화관광(6건) ▲공공행정(6건) 등 5대 분야 50건이다.

최우선 공약 실천으로 전 군민 100만원을 지원하는 민생경제 회복 지원금을 시작으로 기본소득 평생연금, 복지영양 실현, 농산물 가격보장제 확대, 체험·체류형 관광명소화 사업 등 5대 핵심 공약을 추진 할 계획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공약은 영광군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군민과의 지켜야 할 약속”이라며 “공약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군민이 행복한 영광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영암 농기계임대사업소, 6년 연속 ‘우수’

올 6122명에 7713건

영암군이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농기계 임대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6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영암군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147개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사업 성과, 인력·조직 역량, 정책 참여·개선 등 주요 항목으로 나눠 진행됐다.

영암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올해 약 6122명의 농업인이 7713건의 임대 서비스를 실시해 약

7697ha 농작업에 도움을 주는 등 평가 항목 전반에서 두루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소, 서부, 북부 등 3개 권역에서 총 43종 773대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내년 동부지역 지역민의 적기 영농과 원거리 임대 불편 해소를 위해 신규 분점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정 영암군 농기계센터 소장은 “이번 성과를 발판으로 더 많은 농업인들이 임대사업소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천 기자 jbh@kwangju.co.kr

진도군,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우수기관

진도군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은 모자보건사업 중 하나로 임신부와 만 2세 영아 가정에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영유아 건강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 건강상담·영아 발달 상태 검사, 영양·양육 교육 등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진도군은 2023년도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고, 영양사와 협업해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뽕떡엄마 급속야가’)를 제공하며, 임신기간을 포함해 3세까지 1:1

맞춤형으로 영양·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또 고위험 임신부(산모 우울·미혼모·장애 산모 등) 지속 관리, 사례 회의를 통한 다문화가정 등 맞춤형 지원, 출산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연계해 지원, ‘행복한 보배섬 엄마 모임’을 통해 육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모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고 출산 진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진도군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한 출산과 육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

자연 속 학습공간 조성 완도 ‘학교 숲’ 우수상

산림청 ‘우수 학교숲’ 공모전

완도군이 산림청이 주관하는 ‘2024 우수 학교 숲’ 공모 조성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학교 숲 조성사업은 학교 공간에 숲을 조성해 학생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생태 공간을 통해 다양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수 학교 숲 공모전은 산림청에서 2011년부터 매년 조성, 활용·사후관리 분야로 나누어 총 6개의 우수 학교 숲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완도군은 2004년부터 꾸준히 학교 숲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까지 총 16개의 학교 숲을 조성했다.

군은 화흥초등학교 숲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공모에 신청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완도 화흥초등학교 숲 조성 후 경관. <완도군 제공>

화흥초등학교 숲은 2022년에 조성된 곳으로 사계절 내내 꽃이 피는 아름다운 경관 및 기존 수목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학교에서는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 숲 이름 공모를 통해 숲 이름을 ‘화흥 미래 숲’으로 정했으며, 내 나무 가꾸기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연을 돌보는 소중한 경험

을 쌓고 산림 전문가와 함께하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숲의 중요성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했다.

완도군은 내년에 도시 숲에 총 7억 원을 투입해 학교 숲, 산림 조성 숲, 복합 산림 경관 숲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경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자연과 어우러진 시티를 제공할 계획이다.

완도=정은호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ng@